

## 대한민국, 왜 신의 나라인가

인류는 태초 에덴동산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의 세계, 고통과 죄악이 없는 이상세계를 꿈꾸며 살아 왔다. 인간은 원래 동물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늘나라 에덴동산에서 삶을 시작했던 하나님이었다. 그런데 정체를 알 수 없는 선악과를 먹고부터 죽음의 존재, 음양의 형상을 하고, 사망의 신이 되는 마귀의 포로 신세가 되었다. 이것을 격암유록 도부신인(桃符神人) 편에는 "천지상쟁 혼돈시 천신부이 지구승(天地相爭 混沌時 天神負이 地鬼勝)"이라 하여 태초 하나님(天神)과 마귀(地鬼)가 싸워서 하나님을 지고, 마귀가 이겨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성경 창세기에는 태초 아담과 헤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에덴동산에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선악과를 먹고 에덴동산에서 쫓겨났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을 동경하여 먹으면 죽지 않는 생명과일, 이슬만나, 감로수, 불로초를 찾아 먹으려고 애썼다. 이처럼 불로불사 영생을 추구하는 인간 자신의 속성을 보아 인간은 결코 동물의 진화물이나 흠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본래 신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모든 인간관이나 우주관은 재평가해야 할 때다. 말씀이 하나님이요 생명이라는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아도 생명 그 자체가 하나님의 신이요, 사망 그 자체가 마귀신이다. 만물은 생명의 신 하나님과 사망의 신 마귀와의 복합체요, 두 신이 인간 속에 공존하며, 삶과 죽음이 반복되는 존재다. 이것이 구세주 정도령님의 새로운 우주관이요 신과학이다.

우리 한민족은 태생이 원래 하나님의 자손이요, 천손민족이라 일컬어온 민족으로서 실로 영육간에 선진문명을 가르쳐 온 위대한 민족이다. 인간은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만큼 하나님과 같이 성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한갓 아메바로부터 발달한 동물적인 존재로 오인할 수도 있다. 그러가 하면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는 흠으로 빚어 만든 피조물이라는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한민족은 하나님(환인)이 그의 아들 서자환웅(庶子桓雄)을 삼위태백의 성스러운 이 땅에 내려오게 하

여 신시를 베풀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는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과 사람이 곧 하나님이라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펼치며 신의 나라를 세웠고 단군왕검 이후 고조선의 나라를 세워 오늘에 이르기까지 천손민족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다.

한민족이 위대한 것은 인류문명이 발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인간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인간을 하나님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겨 왔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장 잘 전해주는 것이 한민족 고유의 경전인 천부경 81자속에 숨겨져 있으니 한번 살펴 볼 일이다.

一始無始 一析三極 無盡本天 一  
(일시무시일 석삼극 무진본 천일일)  
地一人一三 一積十鉅 無價化三  
(지일이 인일삼 일적십거 무가화삼)

하나님의 역사는 그 시작이 없는 영원전부터 시작하여, 그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사람으로 삼극으로 갈라졌지만, 그 근본에 있어서 다함없는 하나님이다. 즉, 하늘이 첫 번째 하나님(天神)이요, 땅이 두

번째 하나님(地神)이요, 사람이 세 번째 변화된 하나님(人神)이다. 그 하나로부터 열까지 크게 변해도 삼수의 하나님(神)으로서 부족함이 없다.

本心本太陽明  
(본심본태양명)  
人中天地 一終無終一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사람 마음속에 하늘(하나님天神)과 땅(마귀地鬼)이 하나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밝은 태양을 우러러보는 근본이 인간의 본심 즉 양심이다. 하나님의 끝은 끝없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이처럼 81자의 천부경 속에 우주의 시원으로부터 종국(終局)에 이르는 우주철학이 담겨 있고, 인간이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변화된 존재라는 인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다. 그리고 인간과 우주만물은 결국 원래 하나님(神)의 세계로 되돌아간다는 우주변화론적 역사관을 말해주고 있다.\*

### 금주의 말씀 요절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다 [1]

#### “나라고 하는 주체영이 마귀다”

오늘날 나라고 하는 주체영(主體靈)이 마귀(魔鬼)다. 나라는 주체 영이 죄(罪)다. 나라는 주체영이 사망(死亡)의 요소다. 나라는 주체영이 선악과(善惡果)다. 하는 것을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였고, 예배소서 4장에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이 있으며, 불경에도 무야경지에 이르러야 도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원죄요, 유전죄요, 자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라는 주체의식이 사망의 요소인 고로 나라는 주체의식만 제거한다면 사람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에 나라는 주체의식이 죄라고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찬송가에도 나를 항상 버리라고

이기는 삶

### 끝까지 참고 견디라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우스 땅에 읍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신앙이 돈독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다. 이를 시기한 사탄이 하루 동안에 읍의 재산을 모두 없애 버리고 자식들 또한 일시에 죽게 하였다. 그러나 읍은 자신의 슬픔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당신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라고 오호려 하나님께 경배를 올렸다.

그러자 사탄은 읍의 온몸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여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당하게 하였다.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에 괴로워하는 읍을 보다 못한 그의 부인이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결하라”고 이렇게까지 독설을 퍼부었으며, 그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긴 결과가 이런 것이냐”라며 읍을 비웃었다.

너무나 괴로운 읍은 자신이 태어난 날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며 자신이 태어난 날을 원망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당하는 시련과 고통에 대하여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

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결국 하나님은 읍에게서 고통을 거두시고 이전보다 더 많은 자식과 재산으로 축복하셨다.

모든 일에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남들이 포기할 때 한 발 더 내딛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된다. 다음은 오직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이겼다는 극기승자(克己勝者) 조희성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고 참고 견딤이 없었던들 마귀를 꺾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귀를 꺾고 부수고 마귀를 짓기려면 말할 수 없는 인내와 견딤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긴자가 그저 됴이 아니요, 마귀는 집요하게 참고 견디면 못 견디는 것이다.

마귀의 영은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바로 마귀의 약점이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죄가 많을수록 인내심이 없고 죄가 없을수록 인내심이 강한 것이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딤이 있어야 마귀는 손을 번쩍 들고 멸함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길은 바로 인내의 길인 것이다. 여러분이 나에게 어떻게 이겼느냐고 묻는다면 나의 대답은 ‘끝까지 참고 견디기’ 뿐인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기만 하면 구원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긴자의 만분의 일만 해도 구원권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딤만 구원은 구세주가 해주는 것이다. 해도 해도 안 돼도 좋으니 하려고 노력만 해라. 애를 쓰고 기를 쓰는 자는 기어이 이끌고 가겠다.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사회 / 박철수



독창 / 김선에 '영상'



워십댄스 부채춤 위대한 성전 \_ 본부제단 여정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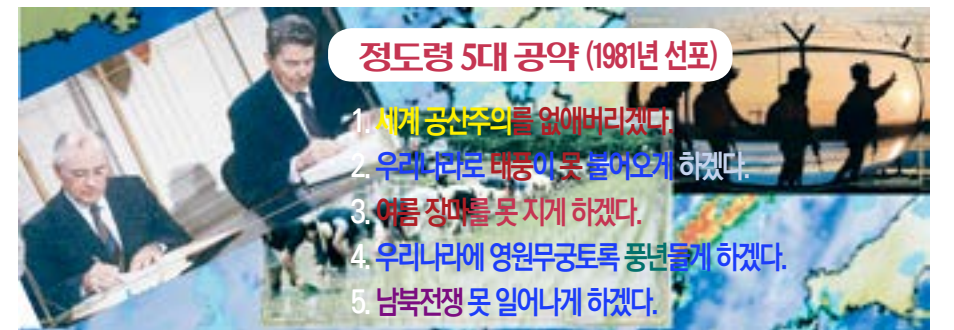
▲ 제창 및 율동 '보시로 즐거운 우리 집' & '영천감을 높이 들고' \_ 영남권 성도  
▶ 남성 중창 '본향을 향하네' \_ 정효진, 김건균, 이승우, 박철수, 조건우



합창 '희망의 나라로' \_ 무궁화합창단



관현악 '이슬성신절 노래' & '방아타령' \_ 무궁화관현악단



#### 정도령 5대 공약 (1981년 선포)

1.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리겠다.
2. 우리 나라 태풍이 온 불어오게 하겠다.
3. 이름 장막을 못 치게 하겠다.
4. 우리나라에 영원무궁토록 풍년을 하겠다.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 5. 남북전쟁 못 일어나게 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슴속에 응어리가 진 6·25전쟁을 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200만 명 이상의 사상자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 손실, 그야말로 우리 한반도는 잿더미가 되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만약 제2의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한반도 국지전의 성격을 넘어서 세계전쟁으로 확대되어 전 인류가 멸망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예측은 누구나 공감

을 하게 되어 있는 일이다. 이긴자 정도령께서는 절대로 그와 같은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신 것이다.

이 공약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능력이 있어야 가능하며, 더 나아가 한반도에서 남북전쟁을 못 일어나게 완전히 종식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남북통일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 고 정도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